

‘그랜드 비전 전쟁’ 이용섭·강기정 리턴매치 구도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용섭 시장과 지난 선거 경선에서의 설욕을 다짐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리턴매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장

현직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다소 딱딱했던 행정 가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소통을 늘리기 위해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등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 ‘이용섭TV’를 활성화해 ‘직접 전하는 3분 뉴스’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한편, ‘브이로그’ 영상 등으로 편한 이미지와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내년 광주형 일자리의 산물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경형 SUV 캐스퍼를 구매하는 광주시민에게 취득세를 지원하고, 설 명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재선을 위한 그랜드공약 발족에도 분주하다. 이 시장은 지난달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위한 그랜드디자인, 포스트코로나를 설계할 가칭 ‘광주대전환 준비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광주와 전남 통합을 비롯, 광주와 인근 시·군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조성에 녹색산업과 인공지능(AI), 줄집거리를 더한 ‘그린·스마트·핀(FUN) 도시’를 만

이, 소통·스킨십·민생 챙기기…대전환 TF 가동 강, 강연정치·지지도포럼 활발… ‘더 큰 광주’ 발표 정준호·김주업 등 출사표…민형배 불출마 선언

들겠다는 취지로, 광주만의 랜드마크와 복합쇼핑몰 건립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지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 시장에게 고배를 마셨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외연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 전 수석은 현재 대학가에서 ‘강연 정치’를 통해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강 전 수석은 매주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인지도 제고와 스킨십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지세력도 꾸준히 늘려 광주시와 유관기관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복광주 미래광주 포

럼’과 ‘상무포럼’이 각각 출범했다.

강 전 수석은 대선 정국에서도 22세기형 디즈니랜드, 대한민국 4대 공항과 1,000만평 공항도시, 호남 HTX 수소광역급행망 등 ‘호남의 미래를 여는 7대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지난달 20일 더쿠브정책연구소와 함께 호남 광역경제권 구상을 위한 4대 가치·18개 전략·65개 정책으로 이뤄진 ‘더 큰 광주 그랜드 비전’을 발표했다.

정준호 변호사는 최근 소속된 법무법인 광고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지 포럼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광주선대위에서 조직부장직을 맡는 등 활발히 움



이용섭



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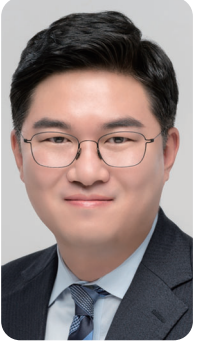
김주업



김혜경



장연주



정준호

직이고 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는 ‘양당 독재 정치’ 종식을 외치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은 물론, 전두환 사망 등에 대한 논평·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도 이달 중순 출마선언 기자회견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시의회 유일의 야당 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평이다. 김혜경 남부대 초빙교수도 일찍부터 출마의 뜻

을 밝혔다. 광주은행과 IT경영학과 초빙교수로서 여성 혁신 리더로서 후진 양성에도 계속 힘써오고 있다.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혔던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은 이미 지난해 9월 시장 출마설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불과 3개월 앞에 치러지는 대선에 밀려 지선이 묻힌 듯 보이지만 시장 출마 예정자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면서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 이 시장과 강 전 수석의 리턴매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 조직 간 신경전이 날 카를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탄탄한 입지’ 김영록 재선 도전…대항마 안갯속

김영록 현 지사의 재선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전남지사 선거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항마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남도지사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신정훈(나주화순),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주철현(여수갑) 의원 등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인물은 없다.

김승남·신정훈·이개호·주철현·민점기 물망 김 지사 17개 시·도지사 직무평가서 1~2위 민주당 정권 재창출 성공 시 역학구도 변화

행정고시 제21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영록 지사는 관선 강진·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18·19대 국회의원 이후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쳐 민선 7기 전남지사에 당선됐다.

김 지사는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를 앞세워 주요 현안을 해결하며 전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호평을 받는다.

관료와 뚝심을 바탕으로 해상풍력단지 구축, 한국에너지공단 착공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점은 도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3년 동안 큰 잡음 없이 도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여론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매달 실시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 지사는 2위권 밖으로 한번도 밀려나지 않을 정도로 도민들로부터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김영록 지사가 독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당내 역학구도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9일 대통령 취임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을

감안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동부권 조직을 총동원해 이재명 후보를 도운 주철현 의원이 체급을 높여 전남지사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순천·여수·광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인구가 전남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부권 대항마가 확산할 경우 주 의원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다면 전남 지사직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도전 의욕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남 의원은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내년 대통



김영록



김승남



민점기



신정훈



이개호



주철현

령·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지사에 출마한다고 하면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진보당만이 전남지사 출마를 표명했다. 2002년 공무원노조 초대 전남본부장을 역임한 민점기 진보당 전남도당 지도위원은 일찌감치 전남지사 출마 뜻을 밝히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민 지도위원은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광주전남 진보연대 상임대표, 5·18 사적지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시도민대책위 공동대표,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등 평생 노동운

동과 시민사회운동에 전념해 왔다.

민 지도위원은 시집 ‘나는 고향에 가서 달을 보았다’와 ‘초록세상으로’를 펴낸 시인이다.

서진 정책을 앞세워 호남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지사 선거에서 20%이상 득표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의 구도라면 김 지사의 재선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며 “대선 결과에 따라 후보군들의 향후 거취가 정해져야만 경쟁구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KEPCO

지속가능한 세상을 열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지구는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이 지속되고,
자연과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국전력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열어갑니다.